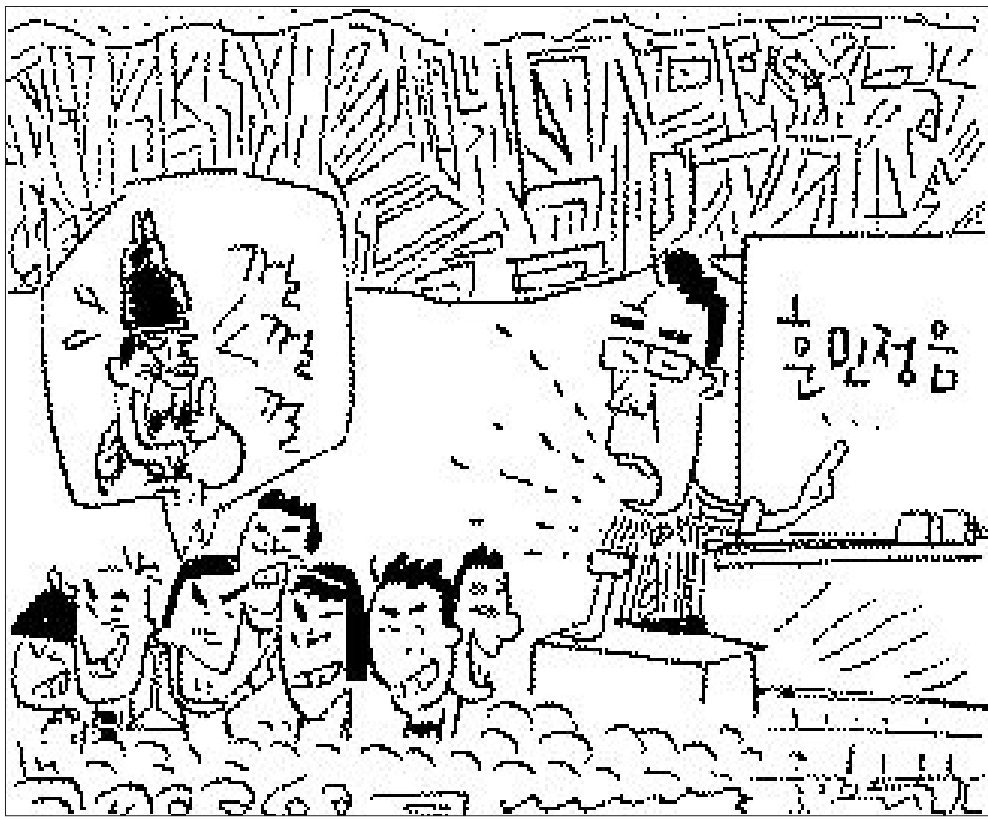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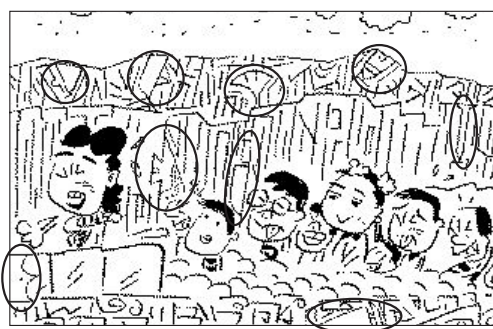


찾아보세요

양주찬, 담배파이프, 스폰, 조각칼, 대접, 비늘, 송사리, 부엌칼, 열대어

훈민정음 전라도 사투리 버전

시방 나라말씀지가 떼놈들 말하고 술찬히 거시기허서 글씨로는 이녁들끼리 통할수가 없음개로 요로코롬 허갓고는 느그 거시기들이 써부리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뜻을 거시기할 수 없은게, 허벌나게 갑갑하지 않것어?



지난주 정답

부엌칼, 은행잎, 뭇, 종이배, 열대어, 뚝배기, 서투름, 팽이, 왕관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5일은 '개혁 풍운아' 서재필 타계 56돌

"나라를 개혁하는 것도 목수가 헌 집을 고치는 것과 같다... 서투르게 건드리는 것은 어서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개화한다고 한 뒤 한 일을 볼 것 같은 면 목수들이 헌 기둥을 모두 떼어버리고 새 기둥을 준비도 안하여 놓았는즉 나라가 튼튼기는 커녕 점점 더 허술하여지니 어찌 염려안하리오"



<서재필>

최근 정치 상황을 빚은 말이 아니다. 송재(松齋) 서재필(徐載弼·1864~1951) 박사가 1896년 독립신문 눈앞에서 나라 개혁의 어려움을 비유하면서 쓴 글이다. 그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과 같이 흘러갔을까. 지난 1951년 1월 5일 송재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파란만장했던 삶을 조용히 끝냈다. 오는 5일이면 꼭 56년이 된다.

보성 출생으로 1884년 12월 김옥균·홍영식 등과 갑신정변을 일으켜 18세의 젊은 나이로 병조참관이 됐으나 정변의 실패로 일본을 거쳐 1885년 미국으로 망명, 1889년 워싱턴대학에 입학했다.

1896년 귀국 후 최초의 순한글과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한편, 이상재·이승만 등과 독립협회를 결성했다. 1897년 영문문을 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으나 수구파 정부와 일부 외국인의 책동으로 다시 미국으로 추방돼 있다. 3·1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한인친우회를 조직, 재미교포들을 결속하여 독립운동추진회를 만들었다.

87년 생애를 통틀어 그가 조국에서 보낸 시간은 23년 남짓이다. 3차례의 귀국과 망명을 거듭하는 풍운을 겪으면서 남긴 그의 공적은 뚜렷하고 화려하다. 국민에게 개화 사상을 불어넣은 사상가로, 독립운동가로, 근대 언론의 아버지, 한국인 최초 근대 의사 등 따라 붙는 호칭도 많다.

하지만 선생의 생애를 재조명하고 민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은 여지껏 미완성인 채 남아있다. 지난 92년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등 부지(1만4천여평)에 124억원을 들여 송재 서재필 선생 기념공원과 기념관 착공 사업이 시작됐지만 관리 주체가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송재 서재필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중재)는 오는 5일 기념공원 준공식을 갖는다. 지난 92년 공사 착공한 지 15년만이다. 서재필 박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관심밖으로 잊혀져 가지 않도록 하면 한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45. 집권 중 시아파 주권을 확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전 이라크 대통령이 구랍 30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979년 대통령이 된 뒤 지난 2003년 3월 미국의 침공을 받아 축출될 때까지 24년 간 이라크를 철권 통치한 이 사람은 고향인 티크리트의 한 농가 지하토굴에 은신해 있다가 미군에 생포된 지 3년 17일 만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사담 후세인 ②오사마 빈 라덴 ③밀로세비치 ④피노체트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정수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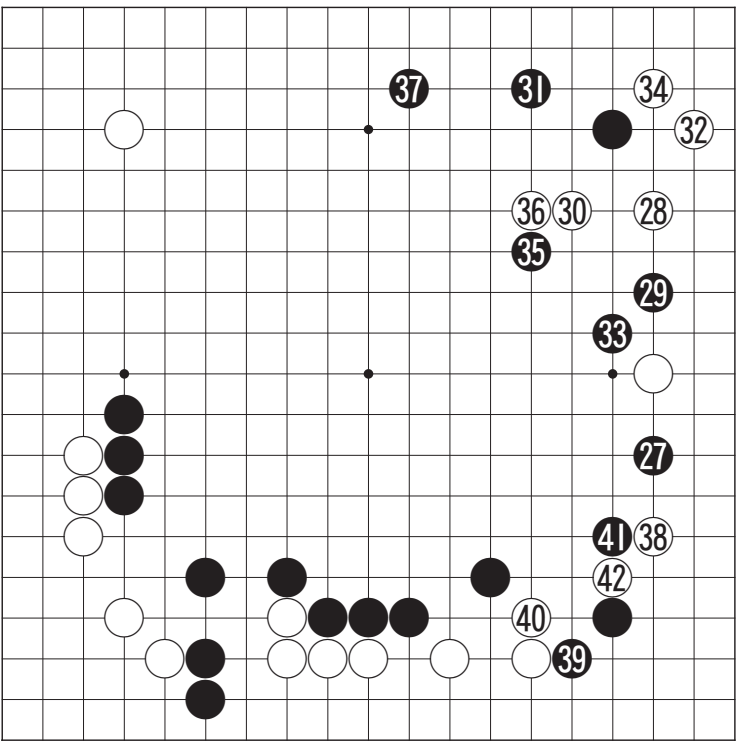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일(음 1월 15일 丁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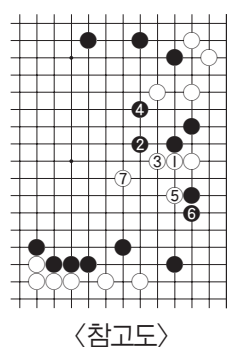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제오월

전남남도지사배 바둑대회 여성부 결승



<참고도>

세력을 구체화시켜 주도권을 잡느냐가 이 판의 관건이 되고 있다. 흑 27 쪽에서 다가간 것이 바른 방향. 백 28과 흑 29의 침입은 기세이며 34까지는 유행정적이다. 그런데 다음의 흑 35가 프로들의 실전에서

치열한 몸싸움 3보(27~42)

白 김지은 5단 <해남군> 黑 김태현 5단 <목포시>

지금까지 흑의 세력과 백의 실리로 확연히 구분되는 포석이 진행되고 있다. 흑이 과연 어떻게 세력을 구체화시켜 주도권을 잡느냐가 이 판의 관건이 되고 있다. 흑 27 쪽에서 다가간 것이 바른 방향. 백 28과 흑 29의 침입은 기세이며 34까지는 유행정적이다. 그런데 다음의 흑 35가 프로들의 실전에서

바둑소식

이영구, 루키스 프로리그 우승

이영구 6단이 루키스 프로리그에서 원년 우승을 차지했다. 이영구 6단은 12명의 신예기사들이 참가한 인터넷 바둑대회인 제1기 루키스 프로리그에서 종합전적 9승2패로 정상에 올랐다. 이 6단은 개막전에서 승리를 따낸 뒤 내리 5연승을 거두는 등 기복 없는 실력을 바탕으로 우승을 일궈냈다. 박정환, 조경호, 최기훈 초단은 각각 7승4패를 기록했으나, 승자승 원칙에 따라 2, 3, 4위로 리그를 마쳤다. 기대를 모았던 김지석 3단은 리그 11위(3승8패)에 머물렀다. 2기 루키스 프로리그는 오는 8일 개막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11>

What are you doing? 뭐 할 거야?

A: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B: A bunch of us are going to the lake to ski. Would you like to join us? A: That sounds like it might be fun. I can't go the whole weekend, but maybe Saturday. B: Drive up whenever you can. You know where the lake house is, don't you?

A: 이번 주말에 뭘 할 겁니까? B: 저희는 호수에서 수상스키를 탈 겁니다. 함께 가겠습니까? A: 아주 재미있겠네요. 온 주말은 불가능하고 아마 토요일에는 가능합니다. B: 올 수 있다면 언제든지 차를 몰고 오세요. 호수가 오두막집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A bunch of ~ : ~의 무리, ~그룹 That sounds like ~ : 그것 듣고 보니 ~ 일 것 같은데요. maybe : 어쩌면, 아마(perhaps) drive up : 차를 몰고 달려오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811>

どうやって、まけばいいの? 어떻게 뿌리면 되는 거야?

A:今日は節分(せつぶん)だから、豆(まめ)まきますんでしょ? B: そうだねえ、脂(くら)くなってから、炒(い)った大豆をまくんだけど、そのあと、自分の年の数だけ、拾(ひろ)って食べるんだ. A:へえ、どうやって、まけばいいの? B: '鬼(おに)は外(そと)、福(ふく)は内(うち)' 이고、二回(にかい)繰(くり)返(かえ)してまくんだ.

A: 오늘은 입춘 전날이니 콩 뿌리기를 하겠죠? B: 그렇지. 어두워지고 나서 붉은 콩을 뿌리는데, 그 뒤 자기 나이 수만큼 주워 먹는 거야. A: 헤! 어떻게 뿌리면 되는 거야? B: '귀신은 물러가고 복은 들어오너라'고 하며, 두 번 되풀이해서 뿌리는 거야.

豆(まめ)まきます : 콩을 뿌리다 炒(い)る : 볶다 拾(ひろ)う : 줍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

一年之计在于春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A: 新的一年开始了, xīn de yǎn óu kāishǐ le 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B: 是呀, 你有什么打算? shìde, nǐ yǒu shénme dǎsuan 스티, 너는 무슨 생각 하시겠어? A: 按习惯, wè xiángguān 의 습관처럼 B: 一年之计在于春, 加油! yī nián zhī jì zài chūn, jiāyóu! 1년 계획은 봄에, 힘내요!

A: 새로운 전 해가 시작되었네. B: 그래, 너 무슨 계획 있니? A: 난 습관대로야. B: 계획을 잘 세워봐라!

习惯 [xiángguān] 습관하다 打算 [dǎsuan] ~할 계획을 세우다, 착상하다 习惯 [xiángguān] 관습을 따라, 습관이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29>

壟斷(농단) 언덕 롱, 절단할 단

농단(壟斷)은 작고 높은 언덕이 깎아 세운 듯이 높이 솟아있는 장소이다.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이익(利益)이나 권력(權力)을 독점(獨占)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옛날의 시장(市場)은 자기에게 남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과 바꾸어 가는 장소였다. 따라서 시장을 다스리는 관리는 부정행위를 단속하였을 뿐, 세금(稅金)을 징수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욕심 많은 장사치가 높이 솟은 언덕(農山)을 차지하고는 시장 전체를 둘러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안 물건을 사다가 비싸게 팔며 시장의 모든 이익을 독차지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를 비난(非難)하였으며 관료도 이 장사치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된 시초였다고 한다.(孟子, 公孫丑) 위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농단'이란 말은 '이익을 독점하는 돈벌이' 또는 '권력의 독재'를 의미하게 되었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대표적 한문단편인 '허생전(許生傳)'에서 허생(許生)이 매점매석(買賈賣惜)으로 많은 이익을 보는데, 이것도 농단(壟斷)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예원(韓譽媛)> 조선대학교 교정연구원 ☎ 230-6505